



# “고려 성군 현종 연기 부담 나라 위한 헌신 눈물 났죠”

종영 KBS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 김동준

“사실 고려 현종이 어떤 분인지 잘 알지 못했어요. 자료를 찾아보면서 죄송한 마음이 들었죠. 이렇게 많은 업적을 이루고 제가 밟은 땅을 지킨 분이데도 잘 몰랐으니깐요.”

최근 인기리에 종영한 KBS 2TV 대하사극 '고려거란전쟁'에서 고려시대 현종을 연기한 김동준은 드라마 출연을 앞두고 큰 부담감을 느꼈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고려 8대 왕인 현종은 2·3차 여요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내정을 정비해 고려 역사상 최고의 성군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존경받는 실존 인물인 만큼 배역을 맡은 배우로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더해 강감찬 역활의 최수종과 강조 역활의 이원종, 양규 역활의 지승현 등 선배 배우들 사이에서 주연을 맡은 점도 어깨를 무겁게 했다고 한다.

지난 12일 서초구의 한 카페에서 만난 김동준은 “감히 내가 현종을 연기해도 될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면서도 “최수종 선배님과 감독님을 뵙고 ‘이분들과 함께라면 같이 그려낼 수 있겠다’는 힘을 얻었다”고 돌아봤다.

그는 “대선배들 사이에서 연기하는 제 모습 이 갑자기 왕이 돼서 늘 긴장하고 날이 서 있는 왕순(현종의 이름)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저의 부담감을 연기에 이용했다”고 말했다.

실제 현종은 어려운 상황을 극적으로 극복한 인물이고, 드라마에도 이 같은 생애가 반영됐다.

고려 태조 왕건의 손자인 왕순은 이른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는다. 왕실의 후계 다툼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타의에 의해 승려가 돼 절에 가게 되고, 이후 암살당할 위기에 빠졌다가 간신히 벗어난다.

왕순은 죽을 고비 끝에 왕위에 오르지만, 선대 왕을 시해하고 실권을 잡은 강조(이원종)의 눈치를 살피는 꼭두각시 처지다. 앞선 데 덮친 격으로 즉위 1년 만에 거란이 쳐들어온다.

김동준은 “절에서 시작해서 처음 궁궐에 들어가는 초반부까지는 촬영 직전에 ‘지금 나는 왕이 아니다, 아직 왕이 안 됐다’고 되뇌었다”며 “그래야 큰 폭으로 성장하는 현종의 모습을 더 잘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의 설명처럼 ‘고려거란전쟁’ 초반부 왕순은 늘 흔들리는 눈빛으로 불안에 떨지만, 죽을 고비를 넘기고 거란과의 전쟁을 치르면서 점차 단호하게 신념을 밀어붙이는 모습으로 변해간다.

김동준은 “왕이 되는 과정에서 조금 불안한

존재였고 신하들과 얘기할 때도 소극적인 모습이었으나 차츰 왕답게 명령하는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며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발성과 목소리에 더 신경 썼다”고 설명했다.

32부작인 ‘고려거란전쟁’은 최고 13%대의 높은 시청률로 증명했다. 특히 외세의 위협에 맞서 나라를 지키려 헌신하는 역사 속 실존 인물들의 이야기가 시청자들에게 큰 울림을 줬다.

김동준은 21회에 현종이 그의 장인이기도 한 김은부를 거란에 사신으로 보내기 망설이는 장면을 언급하며 “이 장면에서 감정이 너무 북받쳐 눈물이 났다”고 털어놨다.

앞서 현종은 거란에 직접 찾아가 머리를 숙이겠다고 약속하고 전쟁을 끝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사신을 보내 핑계를 댄다. 이에 거란은 또 사신을 보내면 목을 치겠다고 엄포를 놓고, 전쟁을 막으러 거란으로 가는 사신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다.

현종은 김은부를 사신으로 보내는 것을 망설이나 김은부는 “수많은 신하가 목숨을 내걸고 거란과의 외교에 임했고, 고려는 그런 나라다. 저도 고려의 신하이니 기회를 달라”며 자처해서 사지로 뛰어들었다.

김동준은 “나라가 비교적 약하다는 이유로 이런 행동까지 해야 한다는 자체가 마음이 아팠다”며 “자신에게 화가 나는 감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호평도 있었지만, 대하사극으로서 워낙 관심이 집중된 작품이었던 만큼 논란도 있었다.

올해 1월에는 원작 소설 작가가 “드라마가 현종을 부적절하게 묘사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와 별도로 제작진 내 이견 때문에 여러 장면이 생략됐다는 언론 보도가 나와 KBS가 공식적으로 부인한 일도 있었다.

특히 김동준은 강감찬 역활의 최수종에 대해 “거의 모든 장면에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고 조언받았다”며 “촬영장에서 선배님의 모습은 군사들을 이끄는 강감찬의 모습 자체였다”고 말했다.

‘고려거란전쟁’은 김동준이 작년 1월 군에서 전역한 이후 첫 드라마 출연이다. 작년 5월부터 종영 직전까지 10개월 동안 촬영을 위해 달려온 김동준은 이 기간 흑시라도 있을지 모를 부상을 피하기 위해 운동도 피했다고 한다.

차기작이 정해지지 않은 김동준은 “사극도 불러만 주시면 당연히 하겠다”면서도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다른 모습이 있다면 1년 동안 현종으로 살아왔으니가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고려 8대왕... 여요 전쟁 승리 견인  
거듭되는 전쟁 속 왕의 성장사 연기  
차츰 변모하는 모습 가장 심혈  
최수종·이원종 등 연기파 선배 든든  
오래전 역사지만 함께 분노하기도

## “중요한건 배움”

BTS 제이홉 다큐 트레이일러 공개

그룹 방탄소년단(BTS)의 제이홉이 다큐멘터리 ‘호프 온 더 스트리트’(HOPE ON THE STREET)의 메인 트레이일러(사진)를 공개했다고 소속사 빅히트뮤직이 14일 밝혔다.

제이홉은 이날 공식 SNS에 게재된 트레이일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이라고 생각한다”며 식지 않는 열정을 드러냈다.

그는 “춤으로 시작했고, 그 춤으로 많은 것들이 파생이 됐다”며 “궁금한 거다. 제가 어떤 춤을 추었고, 어떤 것이 나의 뿌리였나. 내가 꿈꾸는 미래는 뭘지”라며 다큐멘터리 기획 의도도 전했다.

‘호프 온 더 스트리트’는 2013년 데뷔 이래 올해 향수로 12년 차를 맞은 제이홉이 자신의 과거, 현재, 미래를 관통하는 ‘춤’을 매개로 꿈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다.

그는 일본 오사카,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한국 서울·광주 등지로 춤 탐방을 떠났다.

제이홉은 각 도시에서 팝핀, 하우스, 힙합, 록킹 등 여러 스트리트 댄스 분야에서 활약하는 댄서를 직접 만났다.

그는 춤으로 소통하고 배움을 찾아 나가는 과정에 대해 “심장이 쪼뼛다. 감회가 너무 새롭다”며 “춤뿐만 아니라 인생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배우는 과정 중 하나”라고 말했다.

또한 “결국 노래와 춤으로 답이 나오더라”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사랑하고 즐기면서 행복



하게 춤추면...”이라며 춤에 대한 애정도 숨기지 않았다.

‘호프 온 더 스트리트’ 첫 화는 오는 28일 0시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티빙과 프라임 오디오를 통해 공개된다. 다음 날인 29일 오후 1시에는 스페셜 앨범 ‘호프 온 더 스트리트 VOL.1’(HOPE ON THE STREET VOL.1)이 공개된다.

제이홉은 지난해 4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해 오는 10월 전역을 앞두고 있다. /연합뉴스

## 봉준호 신작 ‘미키 17’ 내년 1월 개봉

봉준호 감독의 신작 ‘미키 17’이 내년 설 연휴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 관객들과 만난다.

14일 배급사 워너브러더스 코리아에 따르면 ‘미키 17’은 내년 설 연휴 첫날인 1월 28일 국내 개봉한다. 이는 전 세계 최초 개봉으로, 한국이 봉 감독의 모국이라는 점을 감안했다.

당초 ‘미키 17’은 올해 3월 개봉 예정이었지만, 할리우드 파업 사태 여파 등으로 연기됐다.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권 설 연휴에 맞춰 일정을 조정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미키 17’은 봉 감독이 ‘기생충’(2019) 이후 처음 내놓는 작품으로, 할리우드 톱스타 로버트 패틴슨과 넷플릭스 시리즈 ‘성난 사람들’(2022)로 골든글로브상과 에미상을 거머쥔 한국계 스티븐 연이 주연을 맡았다.

미국 작가 에드워드 애슈턴의 소설 ‘미키 7’이 원작으로, 얼음으로 덮인 우주 행성 개척에 투입된 복제인간의 이야기를 그린다.

워너브러더스 측은 “‘미키 17’은 독창적인 이야기와 캐릭터, 예측할 수 없는 전개와 유머, 뛰어난 제작으로 모두를 놀라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미키 17’ 촬영 현장의 봉준호 감독

### 작은 만남 큰 기쁨! 친절과 정성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업·성업 안내

광주일보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문의 업무국 ☎ 062.220-0551



**꽃게랑 약선반찬 전집**  
광주 북구 운암1동 황계로 27-1  
간장게장, 양념게장, 모듬전, 김치류전 등  
제사음식, 반찬메뉴, 흥어무침, 추어탕  
오리탕, 나물종류 등 사전예약 가능  
☎ 010-2315-2058

**금남로 사주 카페**  
금남로 4가 50번지(원각사 바로 옆)  
궁합, 신수, 작명, 운수 판단  
☎ 010-7495-1577

**대연건설**  
광주 동구 제봉로190번길 7-1  
건설업·설비·토목  
☎ 062)236-1510, 010-2630-4820

**(주)아이기스 화진화장품**  
광주시 동구 금남로 203, 지산빌딩 2층  
안마이자, 식품화장품, 마사지, 기계 개발  
☎ 062)223-0177, 010-3642-7320

**(주)대신수산유통**  
광주시 동구 제봉로 194번길 14  
각종 수산물 무역/유통  
☎ 062)233-0067, 010-3634-7264

**문화결혼상담소**  
북구 북동 242-4번지  
초혼·재혼 상담  
작명, 궁합, 풍수지리  
☎ 062)529-0315, 010-3606-5632

**박당화랑**  
광주 동구 공동 51-18번지(예술의거리)  
한국화, 서양화매매 및 감정  
대표 박환승 ☎ 062)222-6866

**필스제화**  
동구 산수동 553-73(산수5거리옛골리목)  
구두수선·남화·여화창 굽깔이  
가방지퍼수선·염색·광택  
☎ 010-4755-9294

**석당화랑**  
동구 공동예술의거리  
병풍, 액자, 족자, 표구일체·고서화·우품판매  
대표 이석재 ☎ 062)222-3118

**면쟁이**  
동구 산수동 518-14, 광주은행 산수지점 건너편 위  
다양한 각종 면요리와 생과일주스  
75세이상 어르신과 금식카드 고객 50%할인판매  
우동모일, 죽 등 다양한 면요리 전문점  
☎ 010-5459-9664

**(주)쓰리에이치광주대인센터**  
광주시 동구 구성로 215, 4층  
운영, 지압, 뜸, 마사지가 가능  
의료기·발명·특허·우수조달물품  
☎ 062)573-3112, 010-8221-3119

**파크랜드 광주 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2층 252호  
당신의 오늘을 위한 파크랜드.  
가을, 겨울신상품 50%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251, 010-8660-1557

**도명 명리심리연구소**  
광주 남구 봉선동 금호 2차 205동 203호  
학업, 적성, 진로 상담/사주, 궁합, 택일 등  
소장 박관용 ☎ 010-4573-9059  
(광주교육대학 평생교육원 강사)

**남도철학원**  
북구 전변우로 79번길 87(임동)  
수강생 수시모집! 사주, 적성, 출생, 택일  
명리비전으로 수강생 개인지도  
☎ 062)522-9653, 010-8645-2254

**인철(仁喆)익스프레스**  
북구 신안동 764-10번지  
포장·일반이사, 화물운송  
“저층에서 고층사다리 보유”  
☎ 062)572-2323, 010-9509-4422

**무크 광주세정점**  
광주시 서구 상무대로 773, 세정아울렛 1층 151호  
심플하고 옛지있는 스타일의 가을신상품 출시  
남·여화 20~40% 세일  
(일부 품목은 제외)  
☎ 062)370-9151

**법무사 황영수 사무소**  
광주시 동구 지산로 78번길 13, 검월청담빌딩  
소송, 민사집행, 민사신청, 공탁, 가사, 부동산등기  
상업등기 각종 법률무료상담  
☎ 062)226-9966, 010-3002-0816

**초대화랑**  
동구 공동 54-2번지(예술의거리)  
동양화, 서양화 전문판매점  
대표 임해택 ☎ 062)222-2516

**송가네 반찬**  
광주시 남구 백운로 99번길 2  
각종 반찬 주문  
☎ 062)672-9809, 062)672-6376

**다흥치마 한정식 전문**  
광주시 북구 독립로 251  
한정식, 고풍어구이, 주물럭, 찜밥, 갈치구이  
☎ 062)233-9952, 010-4469-0360

**작곡가김기범노래교실**  
광주 동구 계림동 331-4  
(계림동로타리 옛 계림오거리입구 3층)  
전자오케스트라 직접 연주, 개인지도  
조용하고 아늑한 분위기 방문 완비  
☎ 062-225-4445, 010-3603-3064